양촌선생 "주역천견록" 해제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3. 학문적 가치

〈지난호에 이어서〉

어려운 시대에 군자가 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군자다움을 버리고 세상에 아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바름을 더욱 굳게 지키며 평소보다 바름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한 시대로써 말하면 막히고 밝음이 스러지는 때는 소인이 뜻을 얻어 군자를 해치게 되므로 정녕 군자의 바름이 이롭지 않다. 한 몸으로써 말하면 군자가 어찌 때가 불리하다 하여 자신이 지키던 것을 바꾸어 다른 이를 따르겠는가? 어려움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고 더욱 바름을 굳게 지킨 뒤에야 소인들로부터의 재앙을 면할 수 있고. 또한 군자의 도리를 보존할 수 있으므로 '어렵게 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 (명이괘)

올바름과 군자의 도에 대한 확신 없이는 이러한 행동은 지속될 수 없다. 명이괘가 난세에 처한 군자의 처신의 도를 밝힌 것이라면 쾌(夬)괘는 군자가 득세하고 소인이 제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소인은 이미 쇠미하고 군자의 도는 융성한 상황이지만 이 때라고 해서 군자가 아무렇게나 행동하여 군자다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 군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도덕의식에 일치되지 않는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 소인은 가치의식이 희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자는 일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쾌는 다섯 양이 하나의 음을 결연히 제거하는 것이다. 소인은 쇠미하고 군자의 도는 융성하며 왕의 뜰에 밝게 휘날려 믿음과 정성으로 무리를 호령하고 소인의 죄를 분명히 바로잡아 결연히 제거한다. 그러나 여전히 위태로우므로 경계와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쉽게 생각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후회가 있게 된다. 먼저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다스려 소인들이 틈탈 빌미가 없도록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지나치게 강무(剛武)를 사용하여 환난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또한 고식적으로 대처하여 결단하지 않아서도 안 된다. 예로부터 군자와 소인은 한쪽이 자라면 한쪽이 사그라진다. 삼대(三代) 이후 정도를 통해 승리한 경우는 항상 적었고, 부정하면서 승리한 경우가 항상 많았다.(쾌괘)

양촌은 쾌괘를 통하여 군자가 소인을 제거하는 도를 논하고 있다. 군자는 바른 도를 실천하는 자이므로 목적과 수단이 모두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소인이 악하다고 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는 이미 군자가 아니다. 군자가 소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정당성을 완벽하게 갖춤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소인을 제거했다고 해서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인들이 항상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을 잘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군자가 경계하고 조심하는 방법이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몸가짐과 마음을 잘 다스려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경계하고 대비하는 방법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 있다. 군자는 몸가짐을 삼가지 않는 때가 없지만 소인을 제거하려 할 때는 더욱 삼가고 신중해야 한다. 시세(時勢)가 어려운지 용이한지를 살피고 일의 기틀을 중시하여 두루 방비한 뒤에 소리와 낯빛을 움직이지 않고 조금씩 도모하는 이것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지나치게 굳세고 무력적이어서 용납됨이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소인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면 군자를 해치려 하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반드시 "너무 지나치게 싫어하는 것"에서 야기되는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일으키면 이롭지 않다' 한 것이다. 그러나 소인이 쇠미해질 때라면 또 편안히 아무 것도 하지 않아 소인들이 다시 융성하게 해서도 안 된다. 명(明)나라 양준언(楊俊彦)이 왕정에 포열하자 위아래가 힘을 합해 진실된 마음으로 공도(公道)를 시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명히 알게 하여 치도(治道)가 날로 나아졌다. 그러자 참소하고 사악한짓 하는 자를 제거하지 않았으되 저절로 없어지고. 제거하여도 또한 아무런 환난이 없었다. 이것이 '가는 것이 이롭다'는 것이다. 반드시 조금씩 길들여야 하고 서둘러 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먼저 그것을 결행할 방법에 힘쓰고 안일하게 그것을 결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쾌괘를 읽으면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던 즈음 소인과 군자가 한데 어울려 사태를 서로 저울질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수양과 학문에 박차를 가하며 살얼음 밟듯 세상을 헤쳐 가는 양촌의 삶이 눈에 떠오른 다. 이처럼 쾌괘는 바로 양촌의 처세철학을 대변한다. 소인들을 제거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 양촌의 개혁주의적 입장이지만, 시대 상황이 어려울수록 온건한 개혁주의자가 힘을 얻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그는 "역"이란 성인이 군자를 돕기 위한 책 이라고 생각하였다. 성인이 군자를 돕는 것이 성인의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소인이 뜻을 얻으면 군자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에 혼란과 멸망을 불러와 결국은 국가와 사회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치가 잘못되는 가장 큰 원인은 소인이 뜻을 얻기 때문이니 군자는"역"을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인격과 학문을 닦음은 물론 시세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소인이 뜻을 얻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역학에 대한 그의 입장이다.

"역"의 쾌(夬)괘는 다섯 양이 음 하나를 결연히 제거하려는 것이므로 그 세가 쉬운데도 오히려 위태롭다고 경계하였으니 후세의 군자를 배려하고 위하려는 뜻이 지극하다. 아아! 군사의 일 처리는 자신을 바르게 함에 달려 있을 뿐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군자가 뜻을 얻으면 세도(世道)에 크게 다행스런 일이고 소인이 뜻을 얻으면 세도의 불행이다. 후세에 혼란과 멸망이 계속되고 좋은 정치가 없었던 것은 소인이 뜻을 얻었기 때문이다. "역"이 어찌 군자에 대해 사사로웠겠는가?

양촌은 천지와 성인과 "역"을 하나로 파악하고, 성인은 "역"을 통하여 자연의 변화를 알아 천하에 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은 것 같다. 즉 "역"은 군자와 성인이 천도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보았다.

"역" 가운데는 군자로 하여금 소인을 경계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한다. "주역천견록"에는 이밖에도 군자가 소인을 조심하도록 경계한 곳이 여러 번 나온다. 구삼은 군사와 소인이 배치되는 상황에 처하여 양으로써 양의 자리에 거하니 굳셈이 지나친 경우이다. '종(從)'이란 이미 지나간 다음 그 뒤를 쫓는다는 말이다. 군자가 소인을 막을 때는 이리저리 고려하고 지나칠 정도로 막아 후환에 대비해야 한다. 이미 지나갔다고 해석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 자신이 지나지게 굳세다 하여 심하게 대해서도 안 된다. 구삼은 굳셈이 지나쳐 중(中)이 아니니, 그가 소인에 대하여 처음에는 지나치게 굳세고 무단적인 태도로 끊어버리고자 하지만 끝내는 굳셈과 바름만을 믿고 대비하지 않는 자이다. 예로부터 군자는 바름만을 믿고 대비하지 않아 마침내 소인들 때문에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소과괘)

위의 인용문은 소과(小過)괘 구삼효에 대한 설명이다. 소인이 저지를 소행들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 화를 당하게 될지 모르므로 군자는 후환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사괘(師卦)의 상육효와 기제괘(旣濟卦)의 구삼효 등의 "소인은 쓰지 말라"는 효사를 해석하면서도 양촌은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 "역"을 성인의 커다란 용으로 보는 경학관에는 이미 "역" 가운데 군자의 처세술이 밝혀져 있다는 생각이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과 아울러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 특성2)를 설명하며 대부분의 논문이 불교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양촌의 목적은 유학의 도를 드러내려는 것이지 불교 비판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유학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학의 진리관에 대한 확신이 모자라고 유학을 통하여 시대를 넘어 영원한 진리를 찾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그 때문에 유학의 문제의식을 정면에서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진리를 찾으려는 자세가 대체로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양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가 세우고자 한 유학의 진리관을 현대의 유학 연구자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가 과연 유학의 종지를 얼마나 올바르게 세웠는지. 그의 학문적 기여가 후대 유학에 얼마나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앞에서 잠시 살펴본 양촌사상이 퇴계 사상에 끼친 영향관계만을 고려하더라도 그의 학문의 역사적 가치는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양촌의 문제의식이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계승될 수 있다면 이 책의 역사적 가치는 미래에까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촌의 문제의식은 이러하였지만 과연 그가 유학사상을 얼마나 깊고 바르게 이해하였는가 하는 문제 역시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조선조의 많은 유자들은 그가 두 임금을 섬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폄하하였지만 이제 그는 그의 학문과 후대에의 영향을 통하여 바르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끝으로 청명문화재단의 첫 번째 번역사업인 양촌의 "주역천견록"을 내가 번역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책을 첫 번째 번역사업으로 결정하신 분은 청명 임창순 선생님이셨다. 그러나 애통하게도 선생은 내가번역에 착수할 무렵 세상을 훌쩍 떠나버리셨다. 선생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셨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더구나 선생이 남기고 떠나신 자리를 무능한 내가 맡게 되었으니 두렵고 걱정스러울 뿐이다. 그래도 이 책이 해를 넘기지 않고 나을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삼가 이 책을 선생님의 영전에 올린다. 장동우 박사가 초역을 하고 난 다음 내가 다시 번역하였으며 장박사가 역주를 붙인 다음 내가 다시 교정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잘못된 번역이 있으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니, 독자 여러분들의 거리낌 없는 질정을 바랄 뿐이다. 그리고 한 글자라도 더 바로잡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서윤희 청명문화재단 간사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 기 별 고 〈21회〉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橃)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충재 선생 66세 때의"중종실록"을 상고해 본다면, 정월 12일에 이어 26일-27일(중종 100권, 38년(1543 계묘 / 명 가정(嘉靖) 22년) 1월 26일(신미)-1월 27일(임신))에도 천재지변과 근신 그리고 당시 시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사와 임금의 계속된 전교와 구언(求言)에 응답한 대신들의 의견을 살펴볼 수 있다.

(임금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해의 변고가 있었고 또 지진이 발생했으니 이보다 더 큰 재변이 없다.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때야말로 상하가 더욱 공구수성(恐懼修省)할 때이다."라고 한 것에 이어 연일 "천재지변에 대해 대신과 의논하라고 정원에 전교하다.", "땅은 고요해야 하는데 자주 움직이고 무지개와 해의 이변이 있으니 매우 미안하다. 대신을 인견(引見)하고 의논하고자 하니 정부를 부르라."라는 기록이 계속되고 있다.

정원에 천재지변으로 더욱 근신하라고 아뢰었는데, 천재지변은 햇무리가 지고 흰 무지개가 해를 꿰었으며 지진이 발생했다. 황해도 해주(海州)·연안(延安)·배천(白川) 등지에 흰 무지개가 해를 꿰었고 또 동남쪽에 흰 운기가 서로 연하여 해를 꿰었는데 모양은 둥근 무지개와 같은 것이었고, 양 곁에 둥근 고리가 있었는데 그 크기는 태양만 했으며 홍자색(紅紫色) 빛깔이었다. 얼마 있다가 사라졌다. 또 지진이 발생하여 집이 흔들렸고 창문이 모두 울렸다. 충청도 평택현(平澤縣:태종 13년에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었다) 및 경기도 양주(楊州)·양천(陽川)·부평(富平)·남양(南陽)·진위(振威)·장단(長湍) 등 고을에 지진이 발생했다.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1468-1544)가 아뢰기를, "인사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천변이 위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재이가 닥치는 것은 반드시 불러들인 소이가 있는 것이요, 무단히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중략) 다만 하늘의 마음은 인애(仁愛)로운 것이니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자신을 탓하면서 반성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더욱 경계한다면, 반드시 재변이 변하여 상서가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중략) 흰 기운과 흰 무지개는 예부터 모두 병상(兵象)으로 여겨왔습니다. 중국에서 행여 징병을 요구한다면 부득이 따라야 합니다. 지난 성종(成宗)조 때(10년;1478년 11월) 서정(西征: 건주여진 정벌)한 뒤로는 별로 원한을 맺은 일이 없었는데 지금 만약 정토하게 되면 변방에 흔단이 생기게 되어 우리 나라에는 이롭지 않을 듯하니, 이것이 우려스럽습니다.(후략)"라고 하였다.

좌찬성 유관(柳灌, 1484-1545)은 아뢰기를, "근래 재해가 잇따라 2~3년 전부터 가뭄과 흉년이 너무 심해서 백성이 많이 굶어 죽었고, 지난해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에 기근이 극심하여 안이 일체 텅 비었으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하늘이 나타내 보이는 형상(形象)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인 듯합니다. 해는 온갖 양(陽)의 근본인데 흰 무지개가 꿰었으니 이미 두려워할 만한 일이며, 땅은 또 고요해야 하는 것인데 하루에 두 번씩 지진이 발생한 것은 작은 변괴가 아니니, 상께서는 두렵게 여기시어 경계하고 반성하셔야 마땅합니다. (중략) 그런데 요즘 조정의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서 금방 제정했다가 금방 폐지하곤 합니다. 은자(銀子)의 금법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범연한 뜻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었는데 은자를 멋대로 하기는 전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이 생산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채취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조정이 이미 그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놓고 또 금지하지 않는다면 은값이 배(倍)로 오르고 공공연히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팔고 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통렬하게 금지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상(임금)이 이르기를, "내정(內政)이 엄하지 않고 조정의 기강이 서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진실로 그런 말이 있었다. 법령이 시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근래 과연 더욱 심해졌다. 은자에 대한 한 가지 일만으로 보더라도 잠시 그 금법이 해이해지면 문득 다시 전처럼 거리낌 없이 범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우찬성 권벌이 아뢰기를, "변괴(變怪)의 징후에 대해서는 좌우에서 빠짐없이 아뢰었습니다. 대체로 인사(人事)가 순한 뒤에 천리(天理)도 순해진다는 것은 적실하게 대응되는 말은 아닐지라도 군신(君臣) 사이에 아마도 미진한 일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지난번 양연(梁淵, ?-1542)은 병든 지 오래되고 또 위독하여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상께서는 모르셨으며, 김안국도 병든 지 수개월이 되었는데도 스스로 자기의 회포를 진계(陳啓)하지 않았으니, 아랫사람으로서 진실로 미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께서도 죽음에 다 달아 말할 수 없게 된 뒤에야 비로소 승지(承旨)를 보내어 하문하셨습니다. 옛사람이,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선(善)하다고 하였습니다.' ("논어": 人之將死其言善 鳥之將死其聲哀)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신하가 죽을 때는 반드시 유표(遺表)를 요구했는데 우리 나라는 대신이 회포를 진술하고자 하나 위에서나 아래에서 모두 원하지를 않으니, 이것이 재변을 불러들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온편치 못한 뜻이 있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전날 이언적이, 복성군(福城君:이미 李嵋, 중종과 敬嬪 박씨의 아들. 1533년 세자 모해사건으로 귀양 가서 母子가 賜死됨. 1541년 김안로의 아들 김희가 사건을 조작한 巫蠱로 밝혀져 伸寃復爵됨)의 죽음은 조정이 모두 애매하게 여기고 있으면서도 아뢰는 자가 있지 않다고 아뢴 말은, 지친(至親:부자형제;六親:부모형제처자) 사이라고 하더라도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군신(君臣)과 부자(父子)는 인륜의 첫머리이므로 그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나간 일은 진실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신(朝臣)으로서 죄를 얻은 자가 많은데 이들이 소인들이라면 마땅히 엄하게 막고 통렬하게 다스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 여기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극죄(極罪)를 받고 내쫓긴 사람이 있기도 하니, 어찌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호에 계속)

특별연재

국헌공 權攇과 漢文小說

▣ 申 海 鎭(전남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강로전〉

번역과 주석

동사잡록본 〈강로전〉

〈지난호에 이어서〉

18

홍립은 마지막 편을 다 읽지 못하고 머리를 긁으며 스스로 책망하였다.

"사람들의 말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다니, 나는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구나!"

마침내 그는 고향 별장에만 들어박혀 문을 닫아걸고 나오지 않았다. 돌돌(咄咄)이라고만 허공에다 쓰고 찔끔찔끔(盈盈), 눈물을 흘리며 미치광이인 듯 멍청이인 듯하다가, 혼자 중얼거렸다.

'천 칸의 넓은 집에 수많은 비단과 금을 쌓아놓고 그 속에 꽃 같은 미인이 있었도다. 그렇지만 누르하치의 은혜를 뒤로하고 소녀(蘇女)의 애정을 참으며 대장인을 차고 압록강을 건너왔더니, 숙부의 말씀만 아니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으랴! 과연 한윤의 말은 나를 속이지 않았구나!' 이때 소녀(蘇女)는 오랑캐 진영에 있으면서 홍립이 조선에 머무르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는, 태시(大時)에게 울며 간청하여서 조선으로 달려와 곧바로 경성(京城)에 이르렀다. 조정에서는 경성 입구에 그녀를 붙잡아 두게 하고는, 오랑캐 장수의 처분을 기다렸다.

그녀는 손수 쓴 편지를 심혈을 기울여 정성껏 봉함하고는 백금(百金)으로 사람을 사서 홍립에게 전하였다. 홍립이 받아보니 분 향내와 눈물 자국이 남아있어 그녀의 애원하는 모습이 손에 잡힐 듯 눈에 선하였다. 편지에는 대략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첩은 깊은 규방에서 양육되어 어린 나이에 여인이 지켜야 할 정절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팔자가 사납고 불행하여 창졸간에 어르신과 헤어지는 변고를 당하니, 풀들이 누렇게 변한 들판을 지나다가 왕소군(王昭君)의 무덤 청총(靑塚) 앞에서 눈물을 다 쏟았습니다. 어르신께서 가까스로 살아계신다 하여도 서로 만나기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고국을 떠나야만 했던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은 철석같이 하나가 되기로 천지자연에 맹세를 하였었죠. 하지만 조선을 정벌하는 일에 어르신이 참여하는 경악스런 일이 벌어짐에 저의 깊은 기쁨은 무너지고, 저의 섬기는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번 이별한 후에 돌아오지 않으셔도 정녕코 좋은 소식이 오리라고 자나 깨나 기다렸습니다. 어르신을 향한 저의 마음은 물처럼 늘 동으로 흐르고, 운우지정(雲雨之情)은 꿈결에 양왕(襄王)을 만나듯 찾아갑니다.

약수(弱水)는 아득하여 가기 어려운 저 먼 곳에 있으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르신을 사모하는 깊은 정을 소상하게 하늘에 하소연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르신의 한 마디 약속은 단단한 쇠와 같으며, 첩의 충정은 돌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봉수(鳳髓)로 만든 술을 대접하기도 어렵고, 꿈에서의 만남조차도 점점 드물어 갑니다. 땅이 늙어가고 하늘이 거칠어가듯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 제 모습은 홀로 외로이 초췌해지기만 합니다.

오직 마땅히 넋은 산의 뼈대를 따르고, 피는 상수(湘水)의 반죽(班竹)이 될 것입니다. 황천(黃泉)에 가지 않고서는 서로 만나볼 기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신을 봉하면서 목이 메어 글로 저의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합니다.

홍립은 읽기를 마치자,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며 거의 미친 듯이 울부짖고 소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자 뛰쳐 일어서니, 가동(家童)이 만류하였다. 홍립이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 앞에서 십 년 동안 홀아비로 지낸 것으로 대답했으니,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어라고 말할 것인가? 필시 임금을 속인 죄는 중죄를 받을 것이다. 하물며 저 편지에는 죽어서라도 만나자고 했는데, 내가 어찌 인간 세상에서 뻔뻔한 얼굴로 세력가들의 뭇 비난을 받을 것이며, 저승으로 가려는 외로운 영혼을 저버리겠는가? 맹세코 저승으로 따라 가리라."

마침내 식음을 전폐하더니 병들어 누운 지 열흘 만에 일어나지 않았다. 임종 시에 그는 어린 종에게 말하였다.

(다음호에 계속)